

# 2026학년도 6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 국어 영역 •

※ 본 전국연합학력평가는 17개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시행되며, 문제지는 EBSi에서만 제공됩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는 금지됩니다.

### 정답

1	①	2	④	3	①	4	②	5	④
6	⑤	7	③	8	①	9	③	10	⑤
11	①	12	④	13	④	14	⑤	15	①
16	⑤	17	⑤	18	②	19	④	20	①
21	③	22	②	23	⑤	24	③	25	①
26	⑤	27	⑤	28	③	29	②	30	②
31	②	32	④	33	③	34	③	35	①
36	①	37	②	38	④	39	②	40	④
41	④	42	⑤	43	③	44	①	45	①

### 해설

#### [1~3] 화법과 언어

##### 1. [출제의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발표자는 약속 시간에 늦은 친구와의 경험을 언급하며 소극적 체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오답풀이]** ② 추가적인 정보 탐색 방법을 청중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 청중에게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등에 대해 질문하고 있으나, 청중의 답변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④ 최신 연구 자료를 활용하고 있지 않으며, 체면 이론의 구조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⑤ 체면이라는 개념어의 변화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있지 않다.

##### 2. [출제의도] 발표 계획의 반영 여부 확인하기

발표에서 전문가의 발언은 인용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서 지난 학습 내용을 언급하고, 체면 유지의 원리라는 화제를 밝히고 있다.

② 2문단에서 체면 유지의 원리와 체면의 개념을 언급하고 있다.

③ 3, 4문단에서 체면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예를 들고 있다.

⑤ 5문단에서 내용을 요약한 후, 일상에서 실천해 보라고 당부하고 있다.

##### 3. [출제의도] 문법 표현 파악하기

㉞는 보조 용언 '보다'와 의문형 종결 어미 '-크까'를 활용하고 있다. ㉞는 부사어 '같이'와 의문형 종결 어미 '-(으)크래'를 활용하고 있다. ㉞는 부사어 '간단히'와 보조 용언 '두다'를 활용하고 있다. ㉞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부사어 '잠깐'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㉞는 ㉞와 달리 보조 용언을 활용하고 있다.

#### [4~6] 화법

##### 4. [출제의도] 사회자의 역할 이해하기

방송부장은 첫 번째 발언에서 안전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진행 순서를 안내하는 부분은 없다.

**[오답풀이]** ① 방송부장의 네 번째 발언에서 부원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

③ 방송부장의 세 번째 발언에서 두 가지를 한 번에 촬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질문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질문하고 있다.

④ 방송부장의 두 번째 발언에서 전체 영상 시간과 관련된 부분을 다음 회의 때 논의하자고 언급하고 있다.

⑤ 방송부장의 첫 번째 발언에서 학교생활이 잘 드러나야 한다는 점과 학부모님들도 보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 5. [출제의도] 회의 내용 파악하기

'부원 4'는 '부원 2'의 의견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부원 1'은 홍보 효과가 크다는 기대 효과를 언급하고 있다.

② '부원 3'은 '부원 2'가 제시한 시간적 제약과 관련된 문제의식에 동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상 촬영에 동의하는 동아리만 소개해 영상의 분량을 조절하자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③ '부원 2'는 자신이 조사한 신문 자료를 언급하며 '플로깅 활동'이라는 추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⑤ '부원 1'은 '부원 4'가 제시한 방안이 영상 제작에 다른 학생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방안에 동의하고 있다.

##### 6.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의견 제시하기

학부모의 관심도를 고려해 공개 수업을 찍자고 제안하는 부분에서 [자료 1]을, 학생을 바라보는 선생님의 시각에서 시점 샷을 찍자고 제시한 부분에서 [자료 2]를, 당사자들에게 촬영 및 공개에 대한 동의는 사전에 받는 부분에서 [자료 3]을 올바르게 활용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학부모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긴 명사 초청 행사를 제안한 부분에서 [자료 1]을 적절히 활용하였지만, [자료 2]와 [자료 3]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학생들의 초상권 침해 논란이 없도록 동의를 받는 부분에서 [자료 3]을, 점심시간 친구들과의 모습을 촬영하자고 제안하는 부분에서 [자료 1]을 적절히 활용하였지만, [자료 2]는 드러나지 않는다.

③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모습을 촬영하자고 제안한 부분에서 [자료 1]을, 아웃포커스 기법을 제시한 부분에서 [자료 2]를 확인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교실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면 좋겠다는 것이 아웃포커스 기법의 효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자료 3]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사제 플로깅을 제안한 부분에서 [자료 1]을, 타임랩스 기법을 제시한 부분에서 [자료 2]를 확인할 수 있지만, 특정한 모습을 부각해 몰입도를 높이는 것은 시점 샷이다. 또한 [자료 3]은 드러나지 않는다.

##### 7. [출제의도] 품사 이해하기

수사는 조사와 결합이 가능하다. 따라서 목적격 조사와 결합한 '하나'와 서술격 조사와 결합한 '열일곱'이 수사에 해당한다. '다섯'은 체언인 '친구'를, '두'는 체언인 '봉지'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모두 수 관형사이다.

##### 8. [출제의도] 문장의 짜임 분석하기

'배려심이 깊은'은 관형절로 '철수'를 꾸미며, '철수는 키가 크다'에서 '키가 크다'는 서술절이다.

**[오답풀이]**

② ㉞의 '체육관에 오기'는 명사절이고, 부사격조사 '로'와 결합하고 있으므로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다.

③ ㉞의 '특별한 친구들과 공부하기'는 명사절이고, 목적격조사 '를'과 결합하여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④ ㉞의 '철수는 키가 크다'에서 '키가 크다'가 서술절이며, ㉞에는 서술절이 없다.

⑤ ㉞의 '배려심이 깊은', ㉞의 '친한', ㉞의 '특별한'은 관형절이다.

##### 9. [출제의도] 어근과 어간 구분하기

용언 중에서 단일어의 경우에는 어근과 어간이 일치

하지만, 파생어의 경우에는 접사와의 결합으로 어근과 어간이 일치하지 않는다. '구기다'는 단일어로 '구기'는 어근이자 어간이다. '휘감다'는 접두사 '휘-'가 결합한 파생어로 어근은 '감-'이고, 어간은 '휘감-'이다.

**[오답풀이]** ① '기르다'와 '기쁘다'는 모두 단일어로 어근과 어간이 일치하는 단어이다.

② '치솟다'는 접두사 '치-'가 결합한 파생어로 어근과 어간이 일치하지 않는 단어이고, '견주다'는 단일어로 어근과 어간이 일치하는 단어이다.

④ '알리다'는 사동 접미사 '-리-'가 결합한 파생어이고, '새롭다'는 어근의 원래 품사를 형용사로 바꾸는 접미사 '-롭다'가 결합한 파생어이므로, 모두 어근과 어간이 일치하지 않는 단어이다.

⑤ '맞바꾸다'는 접두사 '맞-'이 결합한 파생어이고, '되살리다'는 접두사 '되-'와 접미사 '-리-'가 결합한 파생어이므로, 모두 어근과 어간이 일치하지 않는 단어이다.

##### 10. [출제의도] 음운의 변동 이해하기

'넓히다[널피다]'는 '니'와 'ㅎ'이 합쳐져 '요'으로 소리 나는 축약만 일어났다.

**[오답풀이]** ① '맨입[멘입]'은 '맨'과 '입' 사이에 'ㄴ'이 첨가되었다.

② '닭장[닥장]'은 접반침 '리' 중 '리'가 탈락되고, 'ㅈ'이 'ㅊ'으로 교체되었다.

③ '집일[짐일]'은 '집'과 '일' 사이에 'ㄴ'이 첨가되고, '니'가 'ㄷ'으로 교체되었다.

④ '꽃향기[꼬향기]'는 'ㅈ'이 'ㄷ'으로 교체되고, 그 'ㄷ'이 'ㅎ'과 만나 '트'으로 축약되었다.

#### [11~15] 독서(사회 주제 통합)

##### <출전> (가) 선거관리기관의 유형 및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재구성) / (나) 우리나라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재구성)

개관: (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관리를 수행하는 각국의 선거관리기관을,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정부형과 독립형으로 분류하고 그 각각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형 선거관리기관으로 분류된다는 것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 편성권, 선거관리규칙 제정권, 위원회의 인적 구성, 위원장의 권한 등을 명시하고 있다. (나)는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공격 후보물인 선거공보의 작성 및 접수, 선거공보 내용에 대한 유권자들의 이의제기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을 제시하고 특히, 책자형 선거공보의 둘째 면에 게재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공개해야 하는 사항과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고지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 11.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가)는 선거관리기관의 유형을 정부형과 독립형으로 구분하고, (나)는 선거공보에 게재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공약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나)에는 우편의 방식으로 선거공보를 발송한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가)에는 선거관리기관의 도입 배경이 드러나지 않는다.

③ (가)에서 선거관리기관은 선거 과정의 전반을 관리한다고 언급했으나, (나)에서 선거공보의 변천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④ (나)에서 선거공보 배부의 필요성(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가)에서 선거관리기관의 역사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⑤ (가)에서 선거관리기관이 보장하는 유권자의 권리를 소개하고 있지 않고, (나)에서 유권자가 선거공

보를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

12. [출제의도] 세부 내용 추론하기

㉠은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이고 ㉡은 우리나라 선거공보이다. (가)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 접수 및 발송, 투표개표소 운영을 포함한 선거의 공정한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였고(3문단),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행정부 소속이 아닌 인사로 구성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2문단).

[오답풀이] ① (가)의 3문단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 등에 관한 공직선거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언급하였다.

② (나)에서 선거공보는 후보자나 정당이 작성한다고 하였다(1문단).

③ (가)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 접수 및 발송을 포함한 선거의 공정한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독자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고 하였다(3문단).

④ (나)에서 선거공보에 다른 후보자나 그 가족의 사생활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내용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하였다(2문단).

13.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나)의 3문단에서 공직선거법 제65조 제6항에 따라 후보자나 직계비속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를 사유로 병역의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전역하게 된 경우, 병역처분사항 및 그 사유를 공개 또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경우 후보자 자녀의 병역처분사항을 비공개하면 위법하다는 내용에 대해 ㉡에 표시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판단 결과이다.

[오답풀이] ①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책자형 선거공보 둘째 면에 게재해야 한다(3문단).

② 후보자정보공개자료가 포함되는 선거공보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1문단).

③ 직계존·비속의 재산 형성이 후보자의 도움이 있었다면 후보자와 무관하게 재산이 형성된 것이 아니므로 '고지거부'로 기재할 수 없다(3문단).

④ 후보자의 직계비속 중 혼인한 여성 등의 재산상황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3문단).

14.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나)에서 공약의 현실성은 사건에 걸맞지 않는다고 했으므로(1문단),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약 실현의 어려움과 관련된 증명 서류의 제출을 음에게 요구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선거 관리 전반에서 법률 해석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법관 출신이 위원장으로 호선된다고 하였다(4문단).

② (가)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였다(2문단).

③ (가)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선거와 관련된 이의제기 및 각종 사안에 대한 표결권을 가진다고 하였다(4문단).

④ (나)에서 제출을 요구받은 해당 서류를 이의 제기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실을 투표소 등에 공고한다고 하였다(2문단).

15.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은 '어떤 일의 사무를 맡아 처리함'이라는 의미이다. '만들어서 정하는'은 '제정'을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16~20] 독서(과화)

<출전> 나미브 사막 딱정벌레의 안개 포집 메커니즘과 생존 전략(제구성)

개관: 이 글은 나미브 사막 딱정벌레의 독특한 수분 포집 원리와 그 공학적 응용을 다룬다. 등판의 친수성·소수성 복합 구조가 안개를 포집하는 과정을 '접촉각'과 '표면 에너지'의 상관관계로 설명하고, 약 23°를 유지하는 '안개 쪼기' 행동이 수분 포집 및 이동의 효율을 높이는 최적화 전략임을 밝힌다.

16. [출제의도] 핵심 정보 파악하기

나미브 사막 딱정벌레의 등판의 이질적 구조를 통해 수분 포집·이동의 원리를 설명하고, 딱정벌레의 '안개 쪼기' 자세를 통해 건조한 사막에서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 준다. 따라서 딱정벌레의 수분 획득 원리와 방법은 표제로, 등판 구조와 특정 행동은 부제가 되어야 한다.

17.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응축된 물방울이 이동하는 시점은 물방울의 무게가 부착력을 넘어서는(커지는)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증력에 의해 아래로 떨어진다(3문단).

[오답풀이] ① 유리나 금속은 친수성 물질이므로 소수성 물질의 표면 에너지보다 더 높은 표면 에너지를 가진다(2문단).

② 딱정벌레 등판은 소수성과 친수성의 복합구조로 미세 물입자를 포집하고 이동시킨다(1문단).

③ 나미브 사막은 벨겔라 해류의 영향으로 짙은 안개가 형성되며, 딱정벌레는 이를 수분 자원으로 삼는다(1문단).

④ 접촉각은 고체-액체-기체 세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액체 표면이 고체 표면과 이루는 각도이다(2문단).

18. [출제의도] 세부 내용 추론하기

'최적화 전략'은 체온 손실과 포식자 노출이라는 위험(비용)이 따르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얻는 수분 획득(이익)이 더 클 때에 취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즉, 생존 효율을 극대화하는 선택이다(4문단).

19.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A와 B는 친수성 물질, C와 D는 소수성 물질이다. 따라서 유도도의 역할을 하는 때에는 소수성의 C를 코팅하는 것이 친수성의 A를 코팅하는 것보다 더 적합하다(3문단).

[오답풀이] ① A는 초친수성 물질로 부착력이 강하며, 접촉각이 7°로 가장 작기 때문에 표면 에너지는 가장 높다(2문단).

② 접촉각은 응집력과 부착력 사이의 힘겨투기에 의해 결정되며, 부착력이 강해지면 접촉각이 90°보다 작아진다고 하였으므로 B의 부착력이 응집력보다 크다(2문단).

③ A와 D는 각각 초친수성과 초소수성으로 젖음성이 차이가 가장 큰 수분의 포집과 이동에 가장 효율적이다(1문단).

④ B는 친수성 물질로 물기의 꼭대기에, C는 소수성 물질로 물기의 옆면에 코팅해야 수분 포집 및 이동에 적절한 조합이 된다(3문단).

[20~23] 독서(인문)

<출전> 사유를 발생시키는 조건(제구성)

개관: 하이데거, 들뢰즈, 키에르케고르가 생각에 대해 다양한 층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살피고, 이를 생각이 일어나는 조건이라는 화제로 정리하고 있다.

20. [출제의도]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생각이 일어나는 조건 네 가지를 들고, 이를 병렬적으로 제시했다.

[오답풀이] ② 여러 관점들의 장단점을 언급하지 않았다.

③ 상반된 입장을 절충해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④ 화제에 대한 한계를 언급하지 않았다.

⑤ 철학적 논쟁을 다루지 않았다.

21.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들뢰즈는 비자발적이라는 말을 생각을 하나의 의미로 규정한다는 뜻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비자발적이라는 말은 생각을 강제한다, 생각하도록 한다는 의미로 사용했다.

22. [출제의도] 세부 내용 추론하기

자기 배려를 생각을 통해 낯설과 불편함을 친숙함과 편안함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즉, 평소와 다른 상황에서 느낀 거부함을 친숙함으로 바꿔 해소하려는 것이다.

23.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들뢰즈는 모순된 표현이 모순된 두 의미를 포함해 그 사이에 더 많은 의미가 공존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헤어짐과 헤어짐이 아닌 것 사이에 의미를 채우는 과정에서 생각이 일어난다고 볼 것이다(4문단).

[오답풀이] ① [상황 1]은 낯선 상황에 해당하는 것이지 모순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3문단). 들뢰즈의 입장에서 [상황 1]의 눈물의 의미에 대해서 해석해야 한다.

② 딜레마를 끌어안고 깊이 고뇌한 것이 진정한 사유 행위와 맞닿아 있다고 본 것은 키에르케고르이다(5문단).

③ 특별하게 의식하지 않은 채 어떤 것과 관계한다는 것은 '순안에 있음'으로 이때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본 것은 하이데거이다(2문단).

④ 어떤 존재를 단독적이고 교환 불가능한 존재라고 인식할 때 생각이 일어난다고 본 것은 키에르케고르이다(5문단).

[24~27] 독서와 작문

<출전>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제구성) / 정책 대안의 탐색(제구성)

24.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나)에서 정책 수단과 정책 대안의 개념과 사례는 드러나지만, 정책 대안이 정책 수단보다 중요한 이유는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보편주의, 선별주의가 할당원리라고 언급했다(1문단).

② 소득과 재산 정도, 전문가의 진단이 그 방식에 해당한다(2문단).

⑤ '지하철과 버스', '버스와 도로' 등으로 제시했다(1문단).

25. [출제의도] 읽기 방법 파악하기

(가)에 드러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 급역가 모두에게 지급되어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보편주의의 장점, 심리적 위축이나 근로의욕 상실이라는 선별주의의 단점을 확인한 후 (다)에서 보편주의 정책이 찬성하는 글을 쓰고 있다.

[오답풀이] ②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모두 특정 욕구를 지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③ 선별주의는 소득과 재산 정도라는 경제적 능력을 고려한다.

④ (다) 글쓴이가 정책 수단의 탐색 범위에 주목했다고 보기 어렵고, 정책에 반영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국가별로 비교하고 있지 않다.

⑤ 예산 확보 방안은 추후 논의 사항이라는 내용이 없다.

26.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의 반영 여부 확인하기

(다)의 3문단의 첫 문장이 예상 반론이다. 정책의 능동성이 아니라 효과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서 청년 1인 월세 가구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자는 주장에 찬성하고 있다.

- ② 1문단의 마지막 문장에 글쓴이의 주관적 진술인 이유가 드러난다.
- ③ 2문단에서 전문가 박○○ 교수의 견해를 인용해 근거로 제시했다.
- ④ 2문단에서 □□시 정책연구소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주장을 지지하는 객관적 자료로 활용했다.

**27. [출제의도] 작성한 글 수정하기**

<보기>는 효과성, 능률성의 개념을 합친 효율성 개념을 소개하는 자료로, 정책 결정과 관련된 (나)와 연결된다. [A]에서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한 예상 반론에 대해 능률성의 장점으로 반박하고 있다. 이 두 개념을 아우르는 효율성 개념, 즉 행정 비용을 줄이고 사회적 만족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화하면 예상 반론에 대해 적절하게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오답풀이]** ① <보기>는 능률성과 효율성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나)와 연결되는 자료이다. 또한 보편주의의 장점, 능률성 차원의 우위는 이미 (다)에 언급된 것으로 <보기>의 내용으로 [A]를 구체화하는 방안과는 거리가 멀다.

- ② <보기>는 능률성과 효율성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나)와 연결되는 자료이다. 급여 대상자를 정하는 방식을 [A]에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능률성과 효과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은, 예상 반론이 아니라 이에 대한 반박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 ③ 최소한의 자원과 비용을 투입하는 것은 능률성을 높이는 것과 관련된다. 예상 반론에서 능률성을 높일 때 효율성이 확보된다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책 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점, 정책 대안의 효율성 탐구가 필요하다는 점은 <보기>와 연관성이 떨어진다. 즉, 보편주의가 효율성이 더 높다는 내용을 구체화하여 예상 반론을 반박해야 한다.

**[28~30] 작문**

**28. [출제의도] 초고 내용 이해하기**

휴이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손에 힘을 빼라는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므로(3문단), 스스로 떠올린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 [오답풀이]** ① 1문단에서 가족들에게 직접 만든 도자기 작품을 선물하고 싶었다는 생각으로 체험에 신청했다는 계기를 밝히고 있다.
- ② 꽃병 제작에 활용된 물레 성형 기법의 개념을 3문단에서 추가해 설명하고 있다.
  - ④ 4문단에서 선생님께서 점토를 쌓을 때 두께를 다르게 하는 이유를 컵의 하단부에 해당하는 점토가 물건의 받침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활용해 제시하고 있다.
  - ⑤ 5문단에서 초벌 소성에 대한 개념과 기능, 재벌 소성과의 차이점을 설명하여 소성 과정을 두 번 거치는 이유를 서술하고 있다.

**29. [출제의도] 글쓰기 방식 파악하기**

2문단에서 공예에 쓰이는 흙을 '백자토, 황토, 석기토 등'이라고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다.

- [오답풀이]** ① 1문단에서는 도자기 공예 체험의 계기를 드러낼 뿐 체험의 순서를 단계별로 서술한 부분은 없다.
- ③ 3문단에서 물레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으나 물레의 구조를 분석한 서술은 없다.
  - ④ 4문단에서 휴가래 기법의 개념은 다루고 있지만, 휴가래로 만든 여러 도자기의 종류를 서술하고 있지 않다.
  - ⑤ 5문단에서는 재벌 소성하는 다양한 이유를 열거하고 있지 않다.

**30. [출제의도] 고쳐쓰기의 적절성 파악하기**

도자가 일상 생활에서 널리 사용되지 않는 한계를 서술하여 글의 흐름에서 벗어난 부분은 빼고, 체험 계기와 관련된지 가족들에게 직접 만든 도자기 작품을 선물할 때의 소감을 추가하고 있다.

- [오답풀이]** ① 체험 프로그램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지 않았다.
- ③ 체험을 추천하는 이유를 추가하지 않았다.
  - ④ 다른 문단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다.
  - ⑤ 다른 문단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고, 체험을 추천하는 이유를 추가하지 않았다.

**[31~34] 문학(고전 소설)**

**<출전> 작자 미상, 「유생전」**

개관: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작자 미상의 한문 소설로 남자 주인공인 유생과 여자 주인공인 방 남자의 결연 과정을 보여 준다. 혼사 장에 모티프와 환생 모티프를 활용했으며, 방 남자의 절개와 유생의 효성을 드러내고 있다.

**31. [출제의도] 등장인물에 대해 이해하기**

방 상서가 달목 집안과의 혼인을 결정하자 부인은 기뻐하고 있지만, 방 상서가 자기의 뜻을 따르지 않는 부인을 꾸짖고 있지는 않다.

- [오답풀이]** ① '유생이 아직도 경의 집에 머물러 있어 달목 집안과의 혼인을 망설이고 있다 하니'라는 황제의 진술에서 알 수 있다.
- ③ '서로 바라보면서 눈물만 흘렸다'와 '남자를 그리워한 정을 다 털어놓고 서로 함께 슬퍼하였다'에서 알 수 있다.
  - ④ '그러나 달 씨 가운데서 제가 다시 살아난 것을 안다면 예전의 약행이 다 끝나지 않아 반드시 침범할 것입니다'에서 알 수 있다.
  - ⑤ '달생은 젊은 나이에 과거 급제하여 한림학사에 이르렀으니',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합니다'에서 알 수 있다.

**32. [출제의도] 소재의 의미 이해하기**

'유 승상께서도 역시 저에게 옥지환을 주시면서 이것으로써 너는 마침내 유 씨 집에 들어오라'에서 '옥지환'은 유 승상이 방 남자에게 자기 아들인 유생과의 혼인을 허락하며 건넨 것임을 알 수 있다.

**33. [출제의도] 인물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방 남자가 과거에 한 일은 '애초에 유 승상 태과 정혼한 일'로 자신의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해명하지 않는다.

- [오답풀이]** ① 방 남자는 '이렇게 찾아뵙고 당돌하게 아뢰는 것은 사사로운 욕심에 예를 잃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에서 알 수 있다.
- ② 방 남자는 '유 승상 태과 정혼한 일'이 있는데 '달 씨 집안과 혼인'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다.
  - ④ 방 남자가 '충신'이 '의'를 지키는 것과 '열녀'가 '정절'을 지키는 것을 예로 들어 말하는 장면에서 알 수 있다.
  - ⑤ 방 남자가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고 경사의 내용을 들어 말하는 장면에서 알 수 있다.

**34. [출제의도] 의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방 상서는 황제의 명령으로 딸인 방 남자와 달목 집안과의 혼인을 결정한다. 결정을 내린 이후 상서는 혼자 분통을 이기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인물이 강요한 결연의 문제를 극복한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여러 친족들은 달 씨 집안과의 혼인을 허락하라고 요구하는데 이는 황제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태도로 주변 인물들이 당대의 사회적 권력 구조를 따르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황제가 또 교서를 내려 달목 집안과의 혼인을 강요하는데, 이는 유생에 대해 신의를 지키려는 방 남자가 겪는 시련으로 볼 수 있다.
- ④ 아무것도 먹지 않고 머리를 싸매고 누워 있는 것은 부모님의 결정에 대해 방 남자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방 남자는 상제와 후도 부인의 도움으로 환생하여 유생과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는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받는 환상적인 요소를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5~38] 문학(현대 소설)**

**<출전> 박완서, 「후남아, 밥 먹어라」**

개관: 주인공인 '후남'은 남아 선호 사상과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이면을 선택하는 등 아픔을 겪었다. 이후 귀국하여 치매에 걸린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게 된다.

**35.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후남이 자신의 어머니가 아들을 특별대우하던 과거를 회상하고, '가엾은 우리 엄마'라고 여기는 부분에서 어머니에 대한 후남의 연민을 확인할 수 있다.

**36. [출제의도] 대화의 맥락 추론하기**

후남이가 어머니의 말을 '비굴하고도 은근한 목소리'라고 인식하면서 느낌이 '고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은 어머니에 대해 긍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오답풀이]** ② ㉡은 '하루속히 떨쳐버리'고 싶어 하는 생각을 통해 당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 ③ ㉢은 '왜', '불이는지' 등의 표현을 통해 어머니의 행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보고 말을 건넨 것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 ⑤ ㉤은 주변 인물이 미국 말을 보고 싶어 했던 어머니의 마음을 추측하고 있다.

**37. [출제의도] 인물의 의도 파악하기**

'심년감수'는 '몸속이 10년이나 쪼들 정도로 몹시 놀랐거나 매우 위험한 고비를 겪었을 때 이르는 말'이다. 이는 이모가 마당에 연기가 자욱하여 불난 줄 알았으나 후남의 어머니가 멀정하게 밥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본 후에 한 말로, 자기가 몹시 놀랐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38. [출제의도] 의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후남아, 밥 먹어라'는 자식을 돌보고 챙기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사회에서 부여받은 지위와 역할을 따르는 것에 대해 심리적으로 저항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인식은 확인하기 어렵다.

- [오답풀이]** ① 후남이 본때를 보여 주고 싶어 미국행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으로서 유대감 형성에 어려움을 느껴 관계 단절에 이르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 ②, ③ 후남의 이름만 얻은 자식처럼 항렬자에서 제외시키고, 아들을 보려는 부모의 기대를 반영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남아 선호 사상과 가부장적 질서 내의 여성 차별이 자아 정체성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어머니가 지은 밥 냄새를 맡으며 그동안 인식하지 못하였던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으면서 자아 정체

성을 확립해 갈 수 있다는 작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39~42] 문학(고전 갈래 복합)

<출전> (가) 작자 미상, 「석춘사」 / (나) 심노승, 「눈물의 근원」

개관: (가)는 봄이 덧없이 지나감을 아쉬워하면서 임과 떨어져 사는 고독감과 임에 대한 그리움을 간절하게 노래한 작품이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변하는 외물 속에서 임과의 사랑은 변함없이 지속되었으면 하는 화자의 바람이 잘 드러나 있다. (나)는 아내의 죽음 이후 글쓰기가 느낀 슬픔과 그리움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눈물을 대상으로 하여 그 근원을 탐구하는 논리적인 성격의 작품이다. 마음에서 무엇인가가 저촉되면 느낌이 일어나 눈물이 나는 것으로, 이를 기의 감응과 연결하여 눈물의 근원을 밝히고 있다.

39.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가)의 「그리긴들 어이 하고 생각인들 어이 하리」와 「수심으로 붓을 잡고 한숨으로 채색하니」, (나)의 「어떤 때는 한 번 곡하고도 눈물이 나타나 어떤 때는 천백 번 곡해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을 때도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오답풀이] ① (가)와 (나) 모두 계절의 순환이 드러나지 않는다.  
 ③ (가)의 「뉘 아니 무색하랴」, 「생각인들 어이 하리」, (나)의 「~논해 무엇하리오」 등에서 설의적 표현은 찾을 수 있으나, 대상에 대한 일체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④ (가)와 (나)에 색채어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⑤ (가)와 (나)에 모두 연쇄적 표현은 드러나 있지 않다.

40.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하기

[D]에 「병풍같이」에서 「병풍」은 비유적 대상이고, 「문밖을 안 나서니」라고 말한 점에서, 화자는 지금 문안에 있기 때문에 외부 공간에서 노니는 즐거움을 드러내고 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풀이] ① 「피골 소리」, 「제비 소리」에서 청각적 심상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달빛 아래 미인같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나비야 가지 말아」, 「봄의 신 조화로되 길이 불길 바이 없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그림같이 마주 앉아」, 「태우던 내 간장을」, 「다 쓸이 보겠다고 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41.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하기

(나)의 「눈물은 마음으로부터 나오고 또 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에서 눈물은 마음과 눈에 나오는 것이므로, 눈물이 마음이 없어도 나온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풀이] ①, ② 「눈물은 눈에 있는가? 아니면 마음에 있는가?」, 「눈에 있다면 물이 웅덩이에 고여 있는 듯한가?」, 「마음에 있다면 피가 맥을 타고 다니는 것과 같은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눈물은 눈에 있는가? 아니면 마음에 있는가?」, 「눈에 있지 않다면」, 「마음에 있지 않다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눈물은 느낌을 따라 나오니」, 「어떠한 상황에서든 있는 것이다」, 「그 자리와 자리 아님, 곱함과 곱하지 않음을 또한 논해 무엇하리오」에서 확인할 수 있다.

42.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감상하기

(가)의 「가는 줄 몰랐던」, 「봄철 석 달이 반이나 지났다는 것에서 봄을 경험하는 화자가 봄이 지나감을 아쉬워하고 있고, (나)의 「신과 인간 사이의 이치」가 「진실로 아득하」에서 아내의 죽음을 경험한 글쓰기가

이치를 알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대상이 느낀 상실감에 공감하는 것은 아니다.

- [오답풀이] ① (가)의 화자는 입을 「그리고 또 그리」고 있으므로 임과의 사랑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나)의 바둑, 장기를 두는 것과 같은 「이 모든 경우」에서도 「무언가에 저촉」되면 느낌이 있으므로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적 반응의 이치는 적절하다.  
 ③ (가)의 「입 없이 그린 그림」에서는 입의 부재를, (나)의 「모를 지키」고 있다에서는 아내의 부재를 확인할 수 있다.  
 ④ (가)는 임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수심으로 붓을 잡고」, 「입의 모양 그려」내는 것에서 입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나)의 「꼭하지 않음에도」 무언가에 저촉됨을 느껴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것에서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3~45] 문학(현대 시)

<출전> (가) 윤동주, 「사랑의 전당」 / (나) 박성우, 「보라, 감자꽃」

개관: (가)는 사랑하는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힘겨운 현실로 인해 청차와 서로 다른 운명을 직감하며 이별해야 했던 화자의 현실 인식이 드러나 있다. (나)는 의인화된 자연물인 「감자꽃」이 화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어머니의 사랑을 인식하는 화자의 성찰적 자제가 드러나 있다.

43.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가)는 「감아라」, 「내달려라」, (나)는 「자주 보라 자주 보라」에서 명령형 어미를 활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오답풀이] ① (나)는 「홀홀」, 「쪼글쪼글」에서 음성상징어를 활용하고 있으나, (가)는 음성상징어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② (나)는 「자주 보라 자주 보라」에서 동음이의어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제시하고 있으나, (가)는 동음이의어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④ (가)는 수미상관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⑤ (가)는 「암사슴처럼」에서 직유법을 활용해서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나)는 직유법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44.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 파악하기

㉠은 「고풍한 풍습이 어린」 우리들의 「사랑의 전당」, 「순아 너는 앞문으로 내달려라」, 「뒷문으로 멀리 사라지려다」에서 화자인 「나」가 대상인 「순」과 머물다 떠나야 했던 공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은 「어머니가 쟁겨 싸준 감자」를 「씩씩해서 버린」 공간이자 「자주 감자꽃이 피어 있는 공간이다.

45.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가)에서 「언제 들어왔던 것」인지 몰랐다는 점은 서로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지, 시련에 맞서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오답풀이] ② (가)의 화자는 청자인 순에게 「춧대에」, 「불이 꺼지기 전」에 「앞문으로 내달려」라고 당부를 하면서 자신은 「뒷문으로 멀리 사라지」겠다고 말하고 있다.  
 ③ (가)에서 순의 「아늑한 호수」는 평온한 곳, 화자의 「준협한 산맥」은 험난한 곳이라는 대조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서로 가야할 길이 다름을 알 수 있다.  
 ④ (나)는 어머니를 「자주 보라」는 의인화된 자연물의 말을 통해, 화자에게 어머니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일깨우는 성찰적 태도를 유도하고 있다.  
 ⑤ (나)는 자연물을 관찰하는 화자와 의인화된 자연물인 화자가 나타나는데, 「니 흠어미」와 「꽃핀 나」를

통해 의인화된 화자가 자연물을 관찰하는 화자에게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